2015년 3월 13일 by 리아

0. 들어가며

먼저 이 글이 학벌주의를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종류의 글은 아님을 밝혀둔다. 학벌 이야기가 단순한 찬반양론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더 좋은 글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읽으면 좋겠다. 이 글은 어떤 엘리트들이 학벌을 다루는 양상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담은 글이다.

1. 학벌 담론의 진실

텍스트를 자주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학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그만큼 학벌은 재미있는 주제다. 그러나 학벌을 주제로 글을 잘 쓰기란 어렵다. 학벌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벌 이야기는 각각의 층위에 따르는 서사의 결이 복잡하다. 그러나 누군가 학벌주의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펼친다면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그의 학벌에 대한 구체적인 호기심부터 가질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학벌이 나쁘거나 어중간할 경우 피해의식이 있다는 세간의 평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모종의 신화가 있다. 그래서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학벌에 대해 말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한다. 사회 운동을 하거나 어릴 적부터 공부 외적인 길로 진로를 틀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과 관련한 텍스트는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특히 세상이 복잡할수록 “학벌은 다가 아니다” 류의 글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러한 글은 대개 다음과 같은 훌륭한 셀링 포인트를 갖는다.

학벌, 분명히 가지면 좋은 점도 있다.그러나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좋은 학벌을 가져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학벌 때문에 자존감을 낮추지 마라.학벌 때문에 널 무시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니 멀리하라.내 친구 아무개가 학벌이 좋지 않은데 걔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 그러니 너도 잘 될 것이다.

위의 문장들은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얼핏 이런 글들의 필진은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인권주의자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사람은 대부분 명문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저런 말들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명문대 출신이 이런 말을 해야 열등감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명문대생치고 명문대생이 아닌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얼마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부족하며, 얼마나 많은 자기방어에 시달려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에게 비명문대생이란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던 내 짝꿍”, “공부 못하지만 착한 사촌오빠” 정도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 그들은 그렇게 누적된 협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상 속의 비명문대생을 ‘위로’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위로가 그럭저럭 먹힌다는 것이다.

2. 엘리트의 레토릭

언젠가 실제로 이런 글을 보았다. 한 명문대생이 윗 단락에 나열한 것과 비슷한 레토릭으로 비명문대생들을 위로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좋아요 3,000개가 넘는 인기글이 된 것이다. 수많은 비명문대 학생들은 그 글에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태그하면서 “이것 봐봐. 멋진 글이야.”, “감동했습니다”, “너도 힘내!” 등등의 댓글을 달았다. (‘비명문대’라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면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은 사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세가지 포인트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첫째, 그 글의 필자가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에 명문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흔적을 모두 적어놓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그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두 보편적인 한국 사람의 입에서 “대단하다” 소리가 나올 만한 학교들이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필자가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확률은 희박해보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내내 모의고사 수학 5등급을 면치 못한다거나, 현재완료니 수동태니 관계대명사니 하는 것들에 대해 수능 직전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평균적인 성적의” 청소년 친구들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외로 자주 잊고 사는 사실 중 하나가, 모의고사 4-5 등급이면 평균 성적대라는 것이다. 이 성적이 매우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집단에 속해있었다는 증거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선 “해맑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필자는 열심히 글을 썼다. 나쁜 의

도는 없어보였다. 그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셋째, 필자도 '비명문대' 독자들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보였고, 독자들도 '명문대' 필자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보였다. 양쪽은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필자가 비명문대 독자들을 위로하고, 독자들은 명문대생 필자의 자의식을 채워주는, 뭐 그런 거래.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사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글에는 "학벌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쓸모 없는 인간이고 학벌 때문에 취직을 못한다면 그 기업은 하찮은 기업이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라는 요지의 구절이 있었다. 나는 그 구절을 보고 순전한 공포감을 느꼈다. 그 사람은 학벌 낮은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3. 상상과 실재 – 반경을 넘어서는 집단에 관하여

학벌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자기 학벌의 특수성과 다른 사람들 학벌의 보편성을 적절히 줄타기하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이 줄타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보통은 자기 학벌의 특수성에만 천착하여 결론에 이르게 마련이다. 학벌의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범인의 능력으론 상상하고 체계화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본 어린이 만화책 『키다리 아저씨』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 주디는 상상력이 풍부하며 글쓰기에 남다른 소질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내부의 풍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상상을 하지 못한다. 방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학벌 이야기가 이와 같이 수렴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친한 지인 H의 허락을 받고 그의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H는 소위 말하는 지방 전문 대학에 갔다가 수능을 다시 보고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입학한 후 편입을 통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진학한, 그야말로 넓은 학벌 스펙트럼을 경험한 친구다. H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집안이 몰락한 이후로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 입학을 갈망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적대였던 지방 전문 대학 신입생 환영회날 로스쿨이 목표라는 말을 했더니 우리 주제에 무슨 로스쿨이냐며 모두가 비웃었다고 한다. 로스쿨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더라. H는 자연스럽게 로스쿨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다 반수를 거쳐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입학했더니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몇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 여차저차 마지막으로 들어간 연세대학교에서는 한 동기에게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로스쿨에 다니는 선배를 소개시켜주었다고 한다.

H는 실제로 지금 모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합격 후 H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첫 번째 대학에 다닐 때나 연세대에 다닐 때나 내 지능 지수나 성실함의 정도는 비슷했어. 하지만 무서운 건 대학이 바뀌면서 마인드 자체가 달라졌던거야."

그리고 H는 덧붙였다. "명문대에 오고 나서 가장 놀란 건 명문대에는 담론이 있다는 거야. 노동 운동이니 맑시즘이니 페미니즘이니 학술 동아리니 하는 것들 말야. 전적대를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어. 성폭력 피해자 연대 기구 같은 것도 처음 봤어. 같은 20대가 모인 곳인데, 아찔할 정도로 달라."

H의 예시를 들며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학벌 소속감이 구성원들의 의식 체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환기해보자는 의미다. 둘째는 학벌에 관한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 주디와 비슷한 처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 반경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H처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 속의 명문대와 상상 속의 지방대를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간다. 이 이미지들의 대부분이 미디어나 어른들 말씀, 학창시절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통해 학습된 것이다. 그저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했을 것이고,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뿐이다.

여기서 상상력이 발전해봤자 "서울대 갈 것 아니면 다 똑같아"라며 본질을 은폐하는 자기위안을 하는 정도다.

4. 인간에 대한 예의 — 학벌에 대한 글을 쓸 때

서두에서도 말했듯, 학벌주의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학벌은 주제 면에서 애초에 잘 쓰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다. 다만 인생에서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의외로 이 소재에 대해 정연하게 논하기도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겠다.공부를 잘했으나 어떤 변수에 의해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경우공부를 못했으나 어떤 변수에 의해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경우가족과 친구의 9할 이상이 서울대생이거나 하버드대생인데 자신은 고려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다니는 경우가족과 친구의 9할 이상이 대학을 다니지 않거나 전문대를 다니는데 자신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경우N수나 편입 등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학벌을 바꾼 경우특정 분야에서 재능이 탁월하지만 학벌 때문에 장벽을 경험한 경우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마디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넘나들 수 있는 '식견'이 있는 경우.

이게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루트로 성장하고 대학에 간 사람들은 학벌 주제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면 반드시 바닥이 보인다. 그 사람이 무지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다. 학벌은 기본적으로 터부시되는 주제기 때문에 많은 본질이 은폐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학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벌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학벌과 관련한 굴곡이 없는 사람은 학벌에 대한 통찰력 자체를 갖기 어렵다.

특히 "명문대는 갔지만 학벌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끊임없는 자기모순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쓰지만 페이스북 프로필에 명문대 이름을 박아넣거나, 페이스북 프로필에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놓지만 매번 ㅇㅇ대강당에서 친구를 태그해 사진을 올린다.

물론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학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벌이 가진 다양한 서사의 결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문대생의 목소리도 중요한 것이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선결 조건들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견해로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아무리 본인이 통찰력이 좋고 현명해도 이 세상에는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종류의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명문대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비명문대생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그렇다고 해서 학벌 자체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어설프게 도덕적인 글을 쓰려고 하면 곤란하다.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

③ 명문대 와봤자 소용없다느니, 이제는 학벌도 의미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는 최대한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아무리 취직 안 되는 SKY 학생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 "SKY 다녀도 취직이 힘든 사회"의 진짜 서브 텍스트는, "SKY 아닌 학생은 더 힘든 사회"라는 것이지 "학벌주의 철폐"가 아니다.

④ 학벌은 아예 숨기거나 확실히 드러내는 편이 좋다. 또한 학벌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 위치를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애매하게 숨기고 애매하게 드러내면 불특정 다수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자존감'같은 단어를 남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여기서 지인 A의 일화를 소개한다. A는 모 명문대 본캠 학생이다. A는 예전에 같은 대학 분교 학생인 B와 연애를 했다. 그가 말해주길, B는 똑똑하고 학점도 높고 진취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기방어의 태세를 취했다고 한다. 누가 자길 칭찬하기라도 하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ㅇㅇ캠퍼스인걸" 같은 수사를 붙이면서 말이다.

입시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려대 세종이나 외대 용인, 한양대 에리카 등등의 캠퍼스에 입학하려면 수능을 전체 수험생의 “평균 이상으로” 잘 보아야 한다. 특히 문과생이 이런 대학을 갔다면 실력이 중상위권 이상이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학벌 컴플렉스가 심각하길래 술을 먹고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B가 자신감이 없던 건 아니었다고 한다. B는 공부와 대외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대외 활동에서 발표를 훌륭하게 해냈는데, 뒷풀이 자리에서 “역시 ㅇㅇ대생이다!” 같은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캠퍼스 학생이라고 명시해주었고, 사람들은 “캠퍼스인데 잘하네요.”라고 천진한 얼굴로 칭찬을 했다고 했다더라.

B는 사람들의 천진한 질문 의도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학교 본캠을 다니는 A가 B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 자존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할 수 있을까?

5. 고백

글을 마치며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겠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학벌을 소재로 긴 글을 쓸 수 있는 건, 스스로가 학벌 때문에 어디 가서 차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위에서 학벌 이야기를 하려면 “아예 마음먹고 숨기거나 다 드러내는 게” 좋다고 적었다. 그에 따라 내 위치를 밝히자면, 나는 한예종 학생이다.

솔직히 한예종은 어른들에게 인지도가 낮거나 사람에 따라 평가가 갈리긴 해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학교는 아니다. 어떤 경우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미 나부터 기본적인 학벌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이 글은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글이 못 된다. 단지 일부 엘리트에 대한 회의적 정념의 나열일 뿐. 다만 이러한 정념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가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내 이야기를 더 하겠다. 지금 대학은 나에게 첫번째 대학이 아니다. 나는 재수 끝에 첫 대학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학을 바꾼 케이스다. 난 전적대가 괜찮은 대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적대를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대를 다닐 때는 “ㅇㅇ대 출신치고 의외로 작업이 괜찮네요.”같은 소리를 빈번하게 들었다.

그때였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아니, 못 썼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학벌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너 피해의식 있니?” 소리를 듣는 게 더 무서웠다. 하지만 더 좋은 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고 나니, 아무도 나를 학벌로 무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높은 평가를 받곤 했다.

내 마인드가 변한 것도 있겠지만, 난 개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거대한 구조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회만 되면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 하버드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나는 평범한 인간이라서, 이 욕망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다.

차별의 무서운 점은 차별받는 자로 하여금 저항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많은 엘리트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불특정 다수를 위로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실제로 그들에게 열광한다. 이 패턴이 무서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